

■르포-다시 일터로... 희망의 불씨 지피는 전남 조선업 실직자들

“좌절은 그만... 새 직업찾아 죽기살기로 열공중”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드론전문조종사 교육 받아
하루 8시간 이론·실기 구슬땀
목포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을 딛고 다시 일터로 나가기 위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지역 조선업 실직자의 절규다.

조선업 실업대란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는 목포·영암 대불공단 등에서만 3000여명. 이들에게는 어지러운 국내 정치도,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도 다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20일 무안 청계면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영상매체 강의실. 이곳에서는 조선업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론 전문조종사’교육이 한창이었다. 40여명의 수강생들 대부분은 40~50대였지만, 수업에 참여하려는 열정은 일반대학 강의실 못지 않게 뜨거웠다. 조선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업종이어서 용어 자체도 생소했지만,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무서운 집중도를 보였다.

이들은 미래 먹거리인 드론 전문 조종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루 8시간씩 총 320시간에 걸쳐 과정별 이론과 실기과정을 병행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로 오전에는 이론을, 오후에는 비행 연습을 한다. 원주 비행, 여자 비행, 여자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조선업 실직자들이 20일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영상매체 강의실에서 드론 전문 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비행, 8자 비행 등 초보단계를 마무리하면 장애물 회피 비행, 비상 착륙 등 난이도가 높은 과정을 마스터한다.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코스 연습과 흡사했다.

지금까지 40명 중 19명이 방제 드론 국가자격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오는 26일 수료식을 마치면 방제 드론, 드론 AS사업(34개사 협력망 구축), 영상 편집, 환경, 지리, 측량, 방법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특히 방제 드론 분야는 농약·비료 살포 등 농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많아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

차신대 폴리텍대학 학장은 “신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드론 산업 분야에 투입할 전문 인력이 없어 애로가 많았으나 이

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앞으로 드론 분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강생 정양섭(55)씨는 “이제까지 경력과 전혀 무관한 업종이지만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 지원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거듭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총 79억 원의 예산을 확보, 조선업 퇴직자 지원을 위한 9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16개 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는 조선업종 퇴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안정 서비스와 새로운 일자리

를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구직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조선업근로자의 자녀 공부방과 놀이방 2곳을 운영해 실직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업종 퇴직자가 창업교육을 이수 후 창업성공 시 초기 창업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김상호 목포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조선업 위기로 촉발된 최악의 실업대란 극복을 위해 일자리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시정 철학에 따라 조선업 실직자들의 취업지원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 17:24
달출 00:04 달짐 12:42

남해안지역 '폭우'

시간당 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7/15	보성	5/13
목포	8/14	순천	7/14
여수	10/13	영광	6/14
나주	5/14	진도	9/14
완도	9/14	진주	6/14
구례	2/14	군산	6/14
강진	8/14	남원	3/13
해남	8/14	옥산도	9/12
장성	5/1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1.0~2.5
남부	면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5~3.0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남동~남	1.0~2.0
남부	면바다(동)	동~남동	1.0~2.0	남동~남	2.0~3.0
남부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남동~남	2.0~3.0

◇생활지수

☀	보통
☁	뇌졸중
☔	보통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24	07:25	
	12:34	19:55	
여수	08:11	02:18	
	21:02	14:37	

◇주간 날씨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	☁	☀	☀	☁	☀	☀
9/10	2/13	-1/5	-2/8	3/8	1/6	-3/6

‘호우특보’ 광주·전남 21~23일 최고 80mm 비

광주·전남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21~23일 최고 8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12월 하순 내리는 비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 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23~24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평년 수준을 밑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1972년 12월23일에는 광주에 49mm의 비가 내려 12월 하순 일강수량 최고를 기록했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전지역으로 차차 확대될 예정이다.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사이에는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에 동반된 단량의 수증기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시간당 최고 2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가슴기 살균제 피해 246명... 사망 71명

가슴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는 모두 24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71명, 환자 175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11월 말까지 파악한 광주·전남 지역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246명 가운데 사망자는 광주 36명, 전남 35명 등 모두 71명이다. 생존 환자는 광주 102명, 전남 73명 등 175명이다. 광주지역 피해신고자 비율은 전국의 2.6%로, 이는 인구 비례와 유사하다고

단체는 전했다. 특히 올해 피해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전체 피해접수 79%(109명)에 달했다. 전남에서도 전체 피해신고의 75.9%(82명)가 올해 집중됐다. 전남 도내 지역별로는 순천시 26명(사망 6명)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여수시 15명(사망 7명), 광양시 14명(사망 3명) 등이다. 단체는 전국에서 1000만명이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9만~227만명에 달하는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몰래 산타’ 오셨네 20일 광주 북구 용봉동 새봄 공원에서 열린 ‘몰래 산타’ 행사에서 주민과 어린이들이 산타 복장으로 케밥을 부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봉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부터 방과후학교·야간학습 학생이 선택

광주교육청, 일반고 혁신안 발표

내년부터 광주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후 4시 30분이면 학교를 나갈 수 있게 된다. 정규 수업 이후 ‘사실상’ 획일적으로 실시했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실시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사실상 강제성을 띠었던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을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교과 외 진로·진학과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담은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일보 12월 16일 7면〉
우선, 광주 일반고 대부분이 정규 수업(7교시) 이후 주당 10시간 이내로 국·영·

수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보충수업(8·9교시)을 희망 학생에 한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자율적 선택을 막는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차례 필수적으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없는 날을 운영하고 해마다 확대해나간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신,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이 커지는 점을 반영, 진로·진학 체험에 도움이 되는 자율 동아리 구성·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